BARUN

정답과 해설

원서 해부 노트 정답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 Part 4 파이널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배점: 4·6·9·11·12·13번 각 6.0점, 나머지 10문항 각 5.4점(합 90점) / 서답형 10점(부분 점수 없음)

번호	정답	해설
1	②	진보는 축하나 인정이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해(180쪽 ¶7). ①은 검소함 자체를 목표로 삼은 오답, ⑤는 '떠벌리지 말라'와 반대.
2	④	출판하지 않은 가르침이 아리아노스의 노트와 '손에 쥐다'라는 『엥케이리디온』으로 살아남음(182쪽 ¶2~¶4 · 인용). ①은 글에 없는 '이유', ②는 세부.
3	①	우리를 흔드는 것은 일이 아니라 판단(179쪽 ¶1). ③은 '쉬운 삶은 필요 없다'와, ②는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라'와 반대.
4	③	자리와 명예를 위해 하인에게까지 굽실거려 자유롭지 않은 이들의 노예가 됨(175쪽 ¶10~¶11). ①·②는 slaves의 표면 의미로 유도.
5	⑤	소유물은 통제할 수 없으니 과한 가치를 두지 말라(180쪽 ¶4~¶5). ③은 '강한 감정을 믿지 않았다'와, ②는 결론과 반대.
6	②	①·③·④·⑤는 Musonius, ②는 누구도 멈추게 하지 못한 Epictetus.
7	④	서른 살 생일 전 해방 불가(174쪽 ¶8). ① 오늘날의 터키 ② '얻은 자' ③ 스토아 조언자 둘 ⑤ 그 자신도 전직 노예.
8	③	앞선 스토아들(원로원 의원·장군 등)과 달리 학자의 길을 택함(177쪽 ¶4). 나머지는 177쪽 ¶3~¶6과 일치.
9	⑤	be better to A than to B → to live. ① watch + O + -ing ② what절의 동사 ③ 주격 who ④ met의 목적어 whom.
10	①	(A) 놀라움을 주는 쪽 → surprising (B) written off의 목적어가 빈 관계절 → whom (C) admired와 병렬 → endorsed.
11	④	야망은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180쪽 ¶1 not on externals but on internals) → inward rather than outward.
12	②	어느 손잡이를 잡느냐가 삶을 정한다(178쪽 ¶2~¶3). ③은 형제 탓으로 돌리는 '약한 손잡이', ⑤는 내용과 어긋남.
13	③	③ 앞의 경고를 "Didn't I warn you?"가 받고, ③ 뒤 Such a scene이 부러진 장면을 받는다. ②면 경고보다 부러짐이 먼저.
14	③	실천을 앞세운 철학(181쪽 ¶2~¶4)에 고아 입양 이야기(180쪽 ¶8)가 끼어든다.
15	②	(B) 카피톨리움 핑계 → (A) 바보라는 꾸짖음 · 철학 전체의 실패 → (C) 줄여 말하기까지 꾸짖는 스승에게서 배운 진지함.
16	①	브루투스의 칼 같은 실제 무기(physical) 대신 손에 쥐는 더 깊은 마음의 자유(inner)(182쪽 ¶5 ~ 183쪽 첫 줄). legal은 '더 깊은 자유'와 어긋남.
서답형	LIBERTY	(1) L Hierapolis (2) I Epaphroditus (3) B Musonius Rufus (4) E Domitian (5) R Nicopolis (6) T False (7) Y Arrian → L-I-B-E-R-T-Y(자유) — 자기 검증 장치. 함정: A. Rome · J. Athens, G. Nero · K. Augustus, D. Seneca, C. Hadrian, H. True, S. Junius Rusticus.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들 대부분의 글에서 특권이 배어 나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but + 원형 / feel + O + -ing)
→ **One cannot help but feel the privilege dripping from most of their writings.**

02 그 법은 노예가 서른 살 생일 전에 해방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make + 가목적어 it + for ~ + to be p.p.)
→ **The law made it impossible for slaves to be freed before their thirtieth birthday.**

03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다. (that절 주어 + 단수 동사)
→ **That he even survived into adulthood is a surprise.**

04 그의 철학적 신념의 핵심을 규정한 것은 바로 그 선택이라는 생각이었다. (It was ~ that 강조구문)
→ **It was that idea of choice that defined the core of his philosophical beliefs.**

05 풍요 속에서 불안하게 사느니 차분한 마음으로 굶어 죽는 편이 낫다. (It is better to A than to B)
→ **It is better to starve to death in a calm state of mind than to live anxiously amidst abundance.**

06 무소니우스는 학생 하나하나가 자신을 속속들이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했다. (사역 make + O + 원형 / each of)
→ **Musonius made each of his students feel like he truly understood them at their core.**

07 그는 오늘날 우리가 학자의 길이라 부를 만한 것을 택한 최초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one of the first + to V / what절)
→ **He was one of the first to choose what today we might call the academic route.**

08 인간은 외적인 조건 앞에서 아무리 무력해도 어떻게 반응할지는 늘 고를 수 있다. (양보의 as ~ as + S + V)
→ **As powerless as humans are over their external conditions, they can always choose how they respond.**

09 우리를 흔드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It is not A that ~, it is B)
→ **It's not things that upset us; it's our judgment about things.**

10 그는 자기 훈련이 악덕이 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be cautious not to V / let + O + 원형)
→ **He was cautious not to let his self-discipline become a vice.**

11 그의 소중한 아들은 그의 소유가 아니었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nor + 도치)
→ **His precious son was not his possession, nor were his friends.**

12 이미 안다고 여기는 것은 배우기 시작할 수 없다. (가주어 it / that which)
→ **It's impossible to begin to learn that which one thinks one already knows. (what one thinks one already knows도 정답)**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에픽테토스의 출생 · 사망 / 출신 / 이름의 뜻	서기 55년 / 135년 무렵 · 히에라폴리스(오늘날 터키 지역) / '얻은 자(acquired one)'
자유에 관해 쓴 스토아의 시간 범위 / 평생 일할 필요가 없었던 두 사람	제논에서 트라세아까지 거의 반천 년 / 포세이도니오스 · 파나이티오스
노예 해방 나이를 정한 법 / 그 나이 / 법을 만든 황제	아일리우스-센티우스 법 / 서른 살 생일 전 해방 불가 / 아우구스투스(스토아 조언자 둘)
어린 에픽테토스를 산 사람 / 그의 이전 신분 / 뒤의 직책	에파프로디토스 / 전직 노예 / 네로의 비서(세네카와 함께 일함)
다리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 / 부러진 뒤 한 말 / 다리를 저는 것에 대한 말	후대 기독교 저술가들 / "내가 경고하지 않았소?" / 다리의 장애이지 의지의 장애가 아니다
궁정에 도움을 청한 사람의 남은 돈 / 에파프로디토스가 아첨한 사람	마지막 150만 세스테르티우스(최소 300만 달러) / 네로의 구두장이
관직을 위해 입 맞추는 것 / 그 결과	남의 노예의 손 / 스스로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의 노예
세네카가 정의한 자유 / 아마 만났을 반례의 인물	아무것에도 노예가 아닌 것(강제에도 우연에도) / 아그리피누스
무소니우스에게서 배우던 해 / 무소니우스가 돌아오기 전 겪은 일(몇 번째) / 그때 에픽테토스의 나이	서기 78년 / 세 번째 망명 / 20대였을 것
무소니우스가 본 주의 깊은 학생의 표시 / 학생의 칭찬이 뜻하는 것	침묵 / 강의의 도전을 완전히 놓쳤다는 것
변명에 쓴 건물 / 철학자의 강의실을 빗댄 곳	카피톨리움 / 병원
자유인이 된 때 / 택한 길 / 더 가까웠던 삶	30대 / 학자의 길 / 클레안테스 · 제논(아테노도로스 · 카토가 아님)
철학자를 추방한 해 · 황제 / 망명지	서기 93년 · 도미티아누스 / 그리스의 니코폴리스
삶의 주된 과제의 두 범주	ta eph'hemin(우리에게 달린 것) / ta ouk eph'hemin(달리지 않은 것)
선택의 자유를 꺾지 못하는 신 / 모든 상황이 가진 것	제우스 / 두 개의 손잡이(약한 것 · 강한 것)
가르친 곳과 로마의 거리 / 니코폴리스를 지나며 만난 미래의 황제	500마일 넘게 / 하드리아누스
유명한 말을 보존한 사람 / 두 낱말	아울루스 겔리우스 / persist(견뎌라) · resist(삼가라)
도둑맞은 등잔 / 사후 등잔 값	쇠 등잔(대신 질그릇 등잔) / 3,000드라크마
입양한 사람 / 일곱 자녀(원서 표기)를 잃은 사람	어린 고아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노트를 펴낸 제자 · 권수 / 요약본 제목의 뜻	아리아노스 · 여덟 권 / 『엥케이리디온』 = 손에 쥐다(가장 오래된 뜻은 손칼 · 단검)
카이사르에게서 벗어난 사람과 그 해 / 에픽테토스에게서 힘을 얻은 두 사람	브루투스 · 기원전 44년 / 투생 루베르튀르 · 제임스 스톡데일(1965년 · 스탠퍼드)

4-3. 통합 사고 문제 — 23장과 24장을 잇는 자리

문제

23장에서 무소니우스는 철학자의 말에 청중이 상투적인 칭찬을 쏟아 내고 환호하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며 그들은 철학자가 아니라 피리 연주자의 공연을 듣고 있는 것이라 했고, 성공한 철학자의 표시가 무엇인지를 밝혔다(165쪽 ¶4~¶5). 또 그는 우리를 이성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는 의사에 빗대며, 지름길이나 정신만 들게 할 뿐 병은 고치지 못하는 각성제를 거부했다(168쪽 ¶6). 24장에서 에픽테토스는 학생의 칭찬을 스승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회고했고(176쪽 ¶5), 철학자의 강의실을 병원에 빗대었다(176쪽 ¶8 ~ 177쪽 첫 줄). 두 장에서 무소니우스가 '잘된 강의'의 표시로 꼽은 것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이 기준이 무소니우스와 에픽테토스의 철학 교육관을 어떻게 잇는지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23장 또는 24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잘된 강의의 표시: not applause or praise, but _____.

잘된 강의의 표시: silence (23장 165쪽 ¶5 "It was silence." / 24장 176쪽 ¶5 "silence was a sign of attentive students")
근거 1 (예시): Musonius believed that an audience pouring out praise was hearing a flute player rather than a philosopher, while silence meant they were wrestling with difficult ideas, so a student who praised him had utterly missed the challenge of his lecture.
근거 2 (예시): Just as Musonius compared us to doctors treating ourselves with reason and rejected smelling salts that revive but do not cure, Epictetus called the philosopher's lecture-hall a hospital that students should leave feeling pain, not pleasure.
채점: 단어(silence) + 두 장의 근거(칭찬 · 환호 대신 침묵 / 의사 · 병원의 비유)를 각각 들 것 + 23 · 24장 어휘(praise, applause, flute player, attentive, challenge, doctor, cure, hospital, pain, pleasure 등) 포함. 23장 169쪽 ¶3(무소니우스가 학생을 일부러 돌려보내 결심을 시험함 — 던져 올린 돌이 땅으로 돌아오듯)이나 24장 176쪽 ¶7(카피톨리움 일화)을 들어 '쉽게 칭찬하지 않고 아프게 가르치는 스승'으로 이으면 가산.